

## 라오스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통한 요소별 기여도 평가\*

설규상 ■ 한신대학교\*\*

### 〈국문요약〉

동남아시아 내 최빈국 라오스는 1980년대 후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역대 경제 규모 상위 5개국 평균 성장률을 뛰어넘은 성과를 시현해 왔다. 이를 반영하여 라오스는 앞으로 수년 내에 최빈국 지위로부터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그와 같은 성취를 가능케 한 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7개 설명변인을 추출하여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을 범위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본 관련 변인들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해외직접투자(FDI)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으며, 해외원조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효과 또한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이 연구는 향후 라오스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성장 유발 효과가 높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 후 예상되는 시장압력으로부터의 내성과 탄력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 제고 및 산업생산 부문의 다각화를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외부 행위자들 또한 라오스 경제의 성장으로부터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려면 향후 라오스에 대한 자본 투입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어: 라오스, 최빈국, 경제성장, 해외직접투자, 대외원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061).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초빙교수 (E-mail: sys93113@naver.com)

## I. 서론

1953년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동남아시아 내륙국 라오스는 오랜 내전 끝에 1975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역외는 물론이고 역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폐쇄적 통제경제체제를 고수해 왔었다. 이 때문에 한 동안 국제사회의 라오스에 대한 인식은 정치·사회적 정체, 경제적 고립과 침체, 빈곤, 위약한 인적자본과 유동성 부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들로 점철되어 왔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라오스가 서방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버리고 소비에트식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자유화와 시장 메커니즘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사회주의 정권 수립 후 소비에트 블록의 일원으로서 소련과 베트남으로부터 원조와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던 라오스는 소련경제의 극도의 침체와 베트남의 지원 여력 감소 속에서 직면한 심각한 경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장의 힘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제체제 전환을 개시하였다. 이와 함께 라오스는 그동안 단절해 왔던 동남아시아 비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재개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통제 해제, 대외무역 장벽 완화 및 제거, 시장환율제도 채택,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의 점진적 완화, 해외투자 환경 개선, 관료제 및 국영기업 부문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Anderson et al. 1996, 9-12). 나아가 라오스는 1991년 헌법 개정으로 사적 소유권 보호를 명시하였으며,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1988년 외국인투자법을 도입한 이래 이를 수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하면서 사업·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왔는바, 특히 2004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 기반적 규칙과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는 시장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라오스의 경제성장 속도는 1990년대 이후로 점점 가속화되어 2000년대 진입 이후로는 한때 동남아시아 지역성장 동력이었던 경제 규모 상위 5개국 평균 성장률을 뛰어넘은 실적을 시현해 왔다. 세계은행(World Bank 2019) 통계에 의하면 시장가격 기준으로 라오스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6.18%, 2001년까지 2010년까지 7.13%,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56%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성장률이 각각 2.81%, 2.81%, 2.82%였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한편, 최근 전망에서 국제통화기금(IMF 2019)은 2024년 라오스의 경제성장률(고정가격 기준)이 6.76%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1년 유엔이 사회경제적 발전지표 최하위권 24개국을 최빈국(LDCs)으로 지정하였을 때부터 그 하나에 포함되어 온 라오스는 지난 2018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개발정책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빈국 지위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바, 2021년 검토보고서에서 다시 한 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4년에 최빈국으로부터 공식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개발정책위원회는 이 검토보고서에서 라오스의 국내총소득이 1,996달러로 기준치인 1,230달러를 넘어섰으며, 인적자산지수(Human Assets Index) 또한 72.8점으로 기준치인 66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세 번째 기준인 경제적 취약성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의 경우 기준치인 32점 이하에 근접하는 33.7점에 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UNDP 2018). 최빈국 지위로부터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 단위로 작성되는 검토보고서에서 두 차례 연속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바, 라오스의 경우 이번이 없는 한 차기 검토에서 소득 기준과 인적자산지수 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1971년 처음으로 최빈국 지위 명단이 발표된 후 수 차례에 걸쳐 추가되어 온 총 52개에 달하는 국가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 지위로부터 졸업한 국가 수가 다섯 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장세를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투입과 산출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에서 정책결정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그런데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가 취하는 전략과 조치는 목표 달성 친화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종종 그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의해 도전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력 자체가 상실되기도 한다. 이는 비록 국가들이 개발정책이나 계획을 마련하고 추구하더라도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성장이 항상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발 과정에 때로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단속적이고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라오스 경제의 변화 양상과 관련된 주요 경제·사회적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이 성장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최빈국 경제의 성장 모델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라오스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역내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적 시장자본주의를 수용, 도입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시현해 온 대표적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

남의 성공 사례에 이어 라오스가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II. 선행연구와 합의

미얀마 경제의 점진적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그동안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서구 학계 일부와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교역 환경(Oh & Kyophilavong 2014; Plummer et al. 2010; Sayavong 2015; Suvannaphakdy et al. 2016), 산업구조(Bird & Hill 2010; Haraguchi et al. 2017; Menon & Warr 2013), 금융·투자(Kyophilavong 2016; Oh & Kyophilavong 2014; Vongpraseuth 2015) 혹은 개혁(Bird & Hill 2010)이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심 대상으로 삼아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Suvannaphakdy et al.(2016, 74-75, 84)은 아세안+6 자유무역협정이 라오스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라오스에 수출 확대 및 심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출품 패턴을 변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내에서 라오스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쟁력과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Sayavong(2015, 341-348)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 자유화로 지난 20여 년 동안 라오스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수출경쟁력은 유사한 발전 단계에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그는 라오스의 수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확률변경중력모형(stochastic frontier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교역 상대국의 인구, 교역 상대국의 일인당 소득, 수입국의 거리,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 국내통화 환율, 라오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부여 여부, 아세안 회원국 지위, 국경선 공유 여부, 언어, 식민지 경험,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모형상 변인들이 통계상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달리 산업구조의 관점에서 라오스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Menon & Warr(2013, 71-76, 86)의 경우 수출 주도형 성장이 라오스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편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구조적 변화와 교역·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 등이 성장을 견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수익이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Kyophilavong et al.(2016, 313)은 1984년부터 2012년 동안 라오스를 대상으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 상호촉진적 관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로부터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은행 부문을 자유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능과 경쟁력을 개선하고 민간은행의 역할을 촉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라오스 경제의 성장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중한 지적 성과물들이지만 어느 것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서 국내 학계에서도 라오스의 경제성장 및 개발 관련 연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위와 분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러한 연구는 대개 경제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 및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장 관련 변인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비교적 최근 진행된 연구 가운데 하나로서 백두주(2011, 292)는 라오스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면서 체제전환국인 라오스가 “집단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의 확대, 시장화와 의사결정의 재집중화,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개방화”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성장을 가능케 한 주축으로서 해외직접투자(FDI)와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라오스의 국내 경제(또는 GDP) 성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무역, 투자, 원조를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 백두주(2014, 36-37)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라오스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 투자와 원조의 패키지화가 자립적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는 중국과 같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역할에 보다 비중을 두는 다자간 협력틀 강화와 활용 및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기구 및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설규상(2016, 59-60)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내 최빈국의 성장 전망과 한계를 논하면서 라오스의 교역·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 개혁조치와 제도 정비 및 자원 동원 등 개발 지향적 전략이 현저한 성장세를 가능케 함으로써 최빈국 졸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또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미얀마를 포함하여) 라오스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인프라와 질 낮은 노동력, 부패, 재정적 취약성'과 같은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모두 라오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조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질적이고 규범적이다.

유사하게 인도차이나 사회주의 3국의 경제적 체제전환과 개혁·개발정책을 분석한 글에서 김성주(2003, 321-326)도 라오스의 성장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 역시 각 부문별 성장 지표의 변화 추이와 현황만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서술적이다.

또 다른 연구로서 권율(2005)의 경우, 개혁정책 추진을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및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바, 그는 경제개발과 공업화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증대와 외자 유치를 지목하고 이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전략과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조치와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시장이 작고 내륙국가로서 개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라오스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개발 자원과 기술 도입을 위한 통로로서 원조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다른 각도에서, 이요한(2009)은 라오스의 빈곤과 경제적 취약성 극복 문제를 대외원조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라오스 정부의 ODA에 대한 의존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ODA가 "라오스 정부와 국민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빈곤층과 소외층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질적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현황으로부터 볼 때 아직까지 라오스 경제에 대한 학계, 특히 국내 학계의 관심은 저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라오스가 지속성장

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경제적 역할 및 향방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이 연구는 특히 계량적 방법을 통해 미얀마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도출된 결과를 통해 미얀마 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 III. 분석 방법과 내용

이 연구에서는 라오스가 신경제메커니즘(new economic mechanism)을 채택하고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을 범위로 하여 라오스의 경제성장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국내자본 동원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해외자본 유입은 산업생산 능력을 강화한다.

가설 2: 내수시장이 협소한 경제에서 시장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산업성장 기회를 제고시킨다.

가설 3: 경제적 내구력이 약한 국가에서 개방화는 외부 교란요인으로부터 국내경제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가설 4: 일차산업 위주의 경제에서 비농업 부문의 성장은 산업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유도한다.

이로부터 연구는 라오스 경제의 성장 영향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변인(즉, 독립변인)을 설정하였다.

#### 1. 자본 변인: 해외직접투자(FDI), 해외원조

FDI는 개방형 국제경제체제에서 한 나라가 경제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체이자 정수로 인식되고 있다. 즉, FDI는 생산성 증가와 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요소축적(factor accumulation)의 주요 부문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FDI가 투자자의 수익 본국 송금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국내시장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

향 등과 같은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유치국의 요소생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여 왔다(OECD 2002). 요컨대 FDI는 신기술, 자본, 새로운 경제구조 등을 수반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동한다(De Mello 1997; Du et al. 2012).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은 세제혜택, 시장접근 기회 확대, 공공서비스 및 기타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유치에 매진한다(Vongpraseuth 2015, 791). 이러한 점에서 특히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FDI가 성장 지지적 효과가 있다는데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Abbas et al.(2011, 38)의 경우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서 FDI가 GDP 성장을 전체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Agrawal & Khan(2011, 76)은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FDI가 1% 증가할 때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해 각각 0.07%와 0.02%의 GDP 증대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Iqbal et al.(2013, 79)도 파키스탄 사례분석을 통해 FDI의 영향이 상황 및 문화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혜택의 범위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에서 FDI가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Balasubramanya et al.(1996, 103)의 경우에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46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출지향형 경제에서 FDI의 성장 촉진 효과가 대단히 강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 Vadlamannati & Tamazian(2009, 313-318)은 1980년부터 2006년 동안 80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FDI와 정책개혁, 제도적 요인이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기간에 걸쳐 FDI와 정책개혁이 성장에 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가운데 1990년대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극적인 정책변화와 제도개혁에 착수한 결과 3개 변인 모두 성장 실적에 정적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결론지었다.<sup>1)</sup>

다음으로, 원조의 성장 효과성에 관한 문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관한 많은 경험적 분석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과거 반세기 동안 공여국들이 제공한 대규모

1) FDI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Bruno & Campos(2013, 3-4, 24)는 FDI의 효과성에 관한 국별 연구 총 1002건을 분석한 결과 미시적 연구의 경우 44%가 정적 효과로, 12%가 부적 효과로, 44%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거시적 연구의 경우 50%가 정적 효과로, 11%가 부적 효과로, 39%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정리하였다.



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은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원조가 수원국의 GDP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조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며, 조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장 지지론자들은 원조가 국내자본형성을 보충하거나(Hansen & Tarp 2000), 공공투자를 증대시키고(Feyzioglu et al. 1998), 자본재와 기술 도입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Morrissey 2011) 경제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성장 회의론자들은 원조가 소비와 같은 비개발 분야로 충당되고, 수원국의 원조의존성 내재화, 책임성 약화 및 지대추구(rent-seeking) 조장,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을 유발함으로써 성장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Boone 1994; Bräutigam & Knack 2004; Knack 2001). 또, 조건론자들은 원조의 효과성을 수원국의 선치(good governance)나 좋은 정책과의 연계에 두고 있다(Burnside & Dollar 2000).<sup>2)</sup> 한편 Gnanon(2017, 78, 90)은 경험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최빈국들이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더 많은 원조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오스에서는 2000년대 10년 동안 해외원조가 정부지출 총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라오스 경제가 크게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라오스의 경우 이처럼 해외원조의 상당 비율이 비개발 부문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성장효과 분석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부문에 대한 투입 자체가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민간 및 산업 부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는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유효한 지표로 추론된다. 특히 미얀마 정부가 무역 자유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와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정부 세입 부족을 원조액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2. 시장조건 변인: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출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아세안 시장 통합에 따른 역내 교역 증대 효과는 라오스 경제성장을 설명하

2) 반면 원조가 좋은 정책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Askarov & Doucouliagos 2015, 388).

는데 있어 또 다른 주요 변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AFTA 또는 아세안과 다른 국가들과의 특혜무역협정이 참여국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두고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Kien(2009, 274)은 유럽연합(EU), AFTA, 북미자유무역지대(NFA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4개 경제통합체를 대상으로 중력 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이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지만 AFTA의 경우 회원국들 간에 무역창출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Hapsari & Mangunsong(2006, 20)은 AFTA 회원국들의 교역 패턴을 비교분석하면서 관세인하가 양자간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AFTA가 블록 외 국가들로부터 블록 내 비효율적 국가들로 교역을 이동시키는 무역전환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곧 아세안의 시장 통합이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글로벌 시장경제로 본질적인 전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권 국가들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출범시킨 이래로 시장자유화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상을 통해 마침내 1995년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현재 160개국 이상이 자유무역주의가 제공하는 혜택에 동참하기 위해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컨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이윤 추구 활동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소유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 주체가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공급 원리를 적용한다. 다수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경제 운영 방식을 단순히 통제경제와 시장경제로만 양분할 수 없고, 또 시장경제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지만(Carney & Gedajlovic 2001; Hall & Sockice 2001; Hall & Thelen 2009; Schmidt 2003), WTO 가입은 한 나라 경제가 보다 폭넓은 상호의존성 아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통합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WTO 가입과 함께 라오스 경제가 제도적으로 국지 경제의 틀을 벗어나 글로벌 교역 레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라오스는 WTO 출범 이후 줄곧 동 기구에서의 참여를 추구해 왔는데, 2013년 2월 마침내 158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교역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로써 라오스는 최혜국대우 아래서 160개 이상의 회원국들로 시장접근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Sayavong 2015, 341).

### 3. 외부 교란 변인: 동아시아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적 변화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그 국가가 다른 국가나 국가군으로부터 경제적 침투성이 강할 경우 외부 경제적 변동에 더 큰 취약성을 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 소속 경제분석가들은 동아시아 위기 이전 역대 경제성장률과 안정은 라오스의 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역대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시장 의존도로 라오스 역시 지역 경기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분석한바 있다(Okonjo-Iweala 1999). 이러한 점에서 1997년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그 여파가 인근지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역대 대다수 국가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1986년 이래 지속적 성장세를 시현해 왔지만 태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라오스 경제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동일한 관점에서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라오스 경제에 미친 영향 또한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의하면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은 전년도의 4.18%에서 2.38% 포인트 하락한 1.80%였으며, 2009년에는 -1.74%를 기록하였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평균 성장률 또한 2007년 6.46%에서 각각 3.52%와 1.39%로 하락하였다.<sup>4)</sup> 이로부터 라오스 경제 역시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시기 아세안 사무국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라오스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해외직접투자 감소, 수출 수요 감소 및 관광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유동성 약화로 신용시장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다수의 투자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분석한바 있다(Lindelow et al. 2009, 1).

3) 태국은 라오스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예를 들어 1997년 태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수출액 1억 9천 2백만 달러 중 약 18%인 3천 4백만 달러였으며, 전체 수입액 4억 8백만 달러 중 약 82%에 달하는 3억 3천 6백만 달러였다(ADB 2010).

4) 이에 대해서는 World Bank. n.d.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view=chart> 참조 (2019/05/11 검색).

#### 4. 산업구조 변인: 비농(임·어)업 부문의 산업 비율

Bird & Hill(2010, 122)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이래로 라오스의 공업생산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는바, 최대 부문인 제조업 성장률은 2000년대 말 12%에 달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전반 라오스의 주요 수출상품은 섬유, 의류 경공업제품 및 광물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 수출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문은 중공업제품이었다(Kyophilavong et al. 2016, 359; Oh & Kyophilavong 2014, 50-51). 이는 라오스 산업이 점차 단순노동력 중심의 저부가가치 상품 생산 구조로부터 숙련노동력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구조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0년부터 2012년 동안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업부문별 GDP 성장률을 살펴본 Ghani & O'Connell(2014, 8)에 의하면 저소득 국가들 사이에서 비농업 부문에서 성장이 훨씬 빨랐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다룬 Haraguchi et al.(2017, 306)의 연구도 제조업 부문의 산업부가가치 비율이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같은 소국이 제조업 발전을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라오스 역시 1990년 이래로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배가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한 가장 성공적인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Menon & Warr(2013, 72)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라오스의 실질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이 농업 부문으로부터 비농업 부문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산업구조 변화가 라오스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쳐 왔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상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설정된 방정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1I + b2A + b3F + b4W + b5E + b6G + b7S + \varepsilon$$

여기서 피설명변인인 Y는 국내총생산(GDP)을, 그리고 설명변인들로서 I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A는 원조액, F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출범, W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E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G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S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임업, 수산)부문의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I와 A, S는 등간점수로 측정되며, F와 W, E, G는 양적 의미를 갖지 않는 더미변인(dummy variables)으로서 0과 1의 값으로 측정된다. 즉, F의 경우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출범 후 아세안 원회원국에 대해 0~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2003년까지 값은 0, 그 이후 값은 1로 부여하였다. W의 경우 라오스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연도인 2013년 이전 값은 0, 2013년도부터의 값은 1로 부여하였다. 또, E의 경우 동아시아 위기로 역내 국가들의 성장이 침체된 1998년과 1999년의 값은 0, 이외의 값은 1이다. 마찬가지로 G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2008년과 2009년 값은 0이며, 이외의 값은 1이다. 그리고  $\varepsilon$ 은 분석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차항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출처 및 단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 변인인 해외직접투자(FDI)와 해외원조액은 각각 세계은행(World Bank)의 DataBank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stat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단위와 관련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시가표준 순유입액(US\$)이며, 해외원조액은 시가표준 공적개발원조 제공국들의 총지출(백만 US\$)이다.

둘째, 시장조건 변인인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출범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이 둘이 라오스에 대해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명목 값이다.

셋째, 외부 교란 변인인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위기 발생 연도와 그로 인한 지역 및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기간으로서 이 또한 명목 값이다.

넷째, 산업구조 변인으로서 비농(임·어)업 부문의 산업 비율은 세계은행의 DataBank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측정 단위와 관련해서는, 시가표준 농·임·어업 부문의 산별부가가치를 이용하였다. 이는 전체 산별부가가치의 합인 GDP에서 동 부문이 차지하는 양으로서, 동 부문과 비농(임·어)업 부문과의 관계는 반비례하게 된다. 즉, GDP 내에서 분석 모형에 사용된 농·임·어업 부문의 생산성 비율 증가는 비농·임·어업(즉, 공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비율 축소를 의미하며, 반대로 농·임·어업 부문의 생산성 비율 축소는 비농·임·어업 부문의 생산성 비율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가설 4를 지지하는 경우 방정식 모형에서 S 값이 취하는 기호는 음(-)이 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피설명변인인 국내총생산(GDP) 값 또한 세계은행의 DataBank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변인 값의 단위는 시가표준 미달러(US\$)이다.

## IV. 결과 및 평가

연구가설에 입각하여 모든 변인을 방정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는 비록 이들 변인이 총합적으로 전체 변량의 99.3%에 달하는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해외직접투자(FDI)와 산별부가가치(즉, 분석 모형에서 농·임·어업 부문 부가가치)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이 라오스의 연간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부의 충격과 관련된 위기 변인들은 그것들이 국내 산업생산에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차 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beta$			
상수(a)	-940609883.763	787608409.954		-1.194	.246	
원조	-2383040.236	2253039.083	-.066	-1.058	.302	11.175
직접투자	2.161	.774	.171	2.793	.011	10.633
농업어업산출	5.300	.593	.799	8.938	.000	22.712
AFTA 출범	476616978.903	350712133.344	.048	1.359	.079	3.554
WTO 가입	1056468226.780	571321994.580	.080	1.849	.079	5.389
글로벌 위기	310505144.764	429105896.517	.016	.724	.477	1.368
동아시아위기	-668311612.874	411004344.465	-.034	-1.626	.119	1.255

이와 함께, 1차 분석 결과 이들 설명변인 가운데 해외투자자와 해외원조 그리고 농·임·어업 분야 부가가치 등 양적변인의 경우 분산팽창인수(VIF)가 10을 초과하였다. 이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들 설명변인이 다른 설명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분산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해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세 변인 간에 별도 상관관계를 확

인한 결과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농·임·어업 부문 부가가치 간 상관관계가 0.933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원조	직접투자	농·임·어업 생산
원조	-	0.517	0.551
직접투자	0.03	-	0.933
농·임·어업 생산	0.02	0.00	-

\* 단, 대각선을 기준으로 우측상변은 상관관계, 좌측하변은 유의확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수가 가장 높은 농·임·어업 부문 생산액을 제거한 후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개 설명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96.5%로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해결되었다.

〈표 3〉 2차 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beta$			
상수(a)	-1916660250.954	1572551334.840		-1.219	.235	
원조	9098057.362	3512114.291	.262	2.590	.016	6.736
직접투자	5.768	1.386	.454	4.161	.000	7.835
AFTA 출범	1404805528.554	700802775.814	.142	2.005	.057	3.305
WTO 가입	2853480012.266	1125938963.443	.215	2.534	.019	4.761
글로벌 위기	786140155.124	887521334.019	.040	.886	.385	1.325
동아시아 위기	570767648.480	814545710.424	.029	.701	.491	1.116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외부 교란 변인 즉,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위기는 라오스의 GDP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실성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지 않

았다. 시장조건 변인으로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출범의 경우에도 95% 유의수준을 벗어났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설정된 7개 설명변인들 가운데 95% 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3개의 변인들만으로 3차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변인이 라오스 경제성장에 미쳐 온 주요 요인으로서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표 4〉 3차 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a)	-1086013942.566	635628410.778		-1.709	.099
원조	12470094.230	2631979.906	.359	4.738	.000
직접투자	6.074	1.451	.478	4.186	.000
WTO 가입	2690004041.352	1155187981.957	.203	2.329	.028

그 결과 세 개의 변인은 라오스 GDP 변화의 9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생산활동 재원으로서 해외직접투자가 GDP 성장을 설명하는 정도가 91.3%에 달하였으며, 이어 원조가 3.4%, 그리고 WTO 가입 효과가 추가로 0.9%로 나타났다. 하지만 WTO 가입 효과가 1%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라오스 경제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일지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라오스의 GDP 성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국 국 이상과 같은 결과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라오스 경제성장에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영향을 미쳐온 요인은 해외직접투자인바,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다수의 선행연구들 가운데서 특히 투자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 146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회계 및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KPMG(2018)는 지난 2018년판 ‘아세안 사업안내’(ASEAN Business Guide) 라오스 편에서 라오스 경제가 적극적인 자본 지출 계획을 도입한 운송 인프라와 수력발전 사업과 같은 신흥 부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 또한 2018년 라오스 투자환경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라오스의 급속



한 경제성장이 천연자원의 이용과 수력발전에 의해 추동되어 왔으며, 두 부문은 주로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라오스 정부가 최근 이들 산업의 성장 기회가 유한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경공업, 관광 등의 개발을 우선시해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2018).

한편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원조의 성장촉진적 효과에 대한 추론은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에 상응하는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라오스의 경우 원조의 상당 비율이 비사업 부문에 투입되고 있어 원조가 즉각적인 GDP 성장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컨대, 해외투자가 직접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통제하는 사업활동인데 반해 원조는 수익이 아닌 주로 수원국의 개발역량 조성을 목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및 인적자원 개발 부문에 자원을 투입하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투자는 개방경제 아래서 다른 형태의 자본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때 이루어지며, 원조는 개도국의 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진다. 실제로, 최근 라오스 정부가 발표한 해외원조실행보고서에 따르면 원조의 효율적 시행과 표준화된 평가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별 활동그룹들(Sector Working Groups) 가운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다섯 개 그룹은 인프라, 보건, 교육, 천연자원관리 및 환경,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이었다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7, 5). 즉, 이들 부문에 대한 자원 투입은 전반적으로 GDP 성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약 10여 년 간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개발 효과성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원조 공여국들이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할 점으로서, 외부 교란 변인인 동아시아 위기와 글로벌 위기의 적용 시점의 문제가 있다. 즉, 이 두 설명변인은 더미변인으로서 위기 지속 기간을 연간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의 구체적인 시점과 종점은 다른 변인들처럼 정확히 연도별 적용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노출한다. 요컨대 동아시아 위기가 촉발된 태국의 바트화 폭락과 해외투자자본의 대규모 이탈은 1997년 중반에 시작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서막을 장식한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은 같은 해 9월에 있었다. 또한 위기로부터 회복도 뚜

렸한 시점을 명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위기와 관련하여 1996년 이후 동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아세안 선발5개국 평균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계은행의 집계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 1997년 3.47%대에서 1998년 -0.10%대로 하락한 다음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하여 7년 후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왔으며, 후자의 경우 1997년 4.55%대에서 1998년 -6.18%대 성장으로 급락한 후 2년 후인 2000년에 6%대로 회복되었지만 이듬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sup>5)</sup>

〈표 5〉 동아시아 위기 전후 역대 평균 GDP 성장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동아시아·태평양	5.087	3.470	-0.096	2.992	4.883	2.677	3.607	4.255	5.142
아세안-5	7.370	4.549	-6.184	4.136	6.309	1.909	4.780	5.433	6.870

출처: World Bank, 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로부터 재정리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관련해서도 전자의 경우 위기 이전인 2007년 6.46%에 달했던 평균 GDP 성장률이 2008년과 2009년 3.52%와 1.39%로 하락한 후 2010년 7.07%로 급상승하였으나 이듬해 다시 4%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아세안 선발5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9년 0.55%에서 2010년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8.8%대 평균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1년 다시 전년도에 비해 4% 이상 하락하였다. 반면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은 2007년 4.18%에서 2008년 1.80%, 2009년 -1.74%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에 4.36%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후 2011년 하락하였지만, 그 폭은 1.2%로 앞의 두 국가군에 비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두 위기의 적용 시기를 각각 발생 연도와 이듬해인 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보조적으로 그 연도를 1년과 3년으로 하여 별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도 이 외부 교란변인이 피설명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역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적 분석에서 유용한 설명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다수의 분석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해 왔

5) 세계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범주를 한국, 중국, 아세안, 몽골,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제도 국가들로 규정하고 있다.

음에도 불구하고, 양적분석(계량분석)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속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 연구와 관련하여 비록 분석 과정에서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추가적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부터 제외되었지만, 산업구성 변화의 성장효과 가설(가설 4)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컨대, 투자와 농·임·어업 부문 생산액 간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곧, 라오스의 GDP 성장에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농·임·어업 특히 농업 부문에 투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업 부문은 여전히 라오스의 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앞서 기술한 국무부의 평가와 라오스 정부의 원조실행보고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 V. 결 론

전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1980년대 후반 시장지향적 개혁을 선언한 이후 점진적으로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 과정을 겪어 왔다. 그 결과 라오스는 2000년대 이후로 역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캄보디아, 미얀마와 함께 유엔이 정한 최빈국 지위에 놓여 있는 라오스는 현재와 같은 추세를 지속할 경우 세 나라 중 가장 빠르게 이로부터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양한 경제 및 환경적 변인들을 통해 그와 같은 성장을 이끌어온 주요 유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해외투자가 GDP 성장을 견인한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한정적이지만 원조가 정적 기능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향후 라오스가 지속적인 성장 패턴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면 제도적 차원에서 성장 유발 효과가 높은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2019년판 국별 사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라오스의 사업용이성 점수가 51.26으로 전체 190개국 중 154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World Bank Group 2019, 4). 이는 곧 라오스가 투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자본 동원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라오스와 같은 소규모 경

제에서 투자 친화적 사업 환경 조성은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것인바, 이러한 방향으로의 경제정책 조성 및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라오스 경제가 머잖은 장래에 유엔의 최빈국 지위로부터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투자 관련 제도적 조치는 졸업에 따른 기회를 살리고 동시에 도전요인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라오스가 최빈국 지위로부터 졸업할 경우, 이는 라오스의 국가 신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해외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라오스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최빈국 지위 졸업은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특혜조치의 하나인 양허성 자금 지원의 중단을 수반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 부담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은 대외적 압력에 대한 내성과 탄력을 요구한다. 이는 재정 및 금융정책과 관련 제도의 건전성 제고에 바탕을 둔다. 동아시아 위기 시, 직전까지 지속적인 투자 유입과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했던 국가들 가운데서 특히 재정 및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높았던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선례로부터 보더라도 이 부문의 건전성 제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라오스 경제가 성장 과정에서 농·임업 및 경공업 제품 부문 생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중공업제품 생산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1차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 소득원 또한 자원 부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는 라오스가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향후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생산 활동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생산 부문의 다각화는 제3세계의 저발전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수용되어 온 전통적 지혜인 자원 의존형 1차산업 중심 경제가 노정할 수 있는 외부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된 라오스 경제의 성장 유인이 해외직접투자 및 원조라는 자본 변인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앞으로 이들 요소가 라오스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이로부터 라오스뿐만 아니라 라오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 모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려면 향후 라오스 경제에 대한 자본 투입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고 또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권 율. 2005. "라오스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수은해외경제』 4, 4-23.
- 김성주. 2003. "인도차이나반도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개혁·개발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1), 301-334.
- 백두주. 2011. "체제전환국 경제개혁·개방정책의 특성과 효과." 『민주주의와 인권』 11(2), 249-298.
- \_\_\_\_\_. 2014. "라오스 안의 중국, 위협인가? 기회인가?: 무역, FDI, 그리고 ODA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8-35.
- 설규상. 2016.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서 전망과 한계." 『비교민주주의연구』 12(1), 33-65.
- 이요한. 2009. "한국의 대라오스 공적개발원조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19(1), 185-213.

### 영문 자료

- Abbas, Qaiser, Salman Akbar, Ali Shan Nasir, Hafiz Aman Ullah and Muhammad Akram Naseem. 201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Gross Domestic Product." *Glob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11(8), 35-39.
- Agrawal, Gaurav and Aamir Khan. 2011. "Impact of FDI on GDP: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6(10), 71-79.
- Anderson, Jonathan B., Michael Brault, James A. Daniel, Filippo Di Mauro, Przemyslaw Gajdeczka, and Pedma Gotur. 1996. "Setting of Economic Reform." in Ichiro Otani and Chi Do Pham, eds.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ystemic Transformation and Adjustment*, Occasional Paper 137.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ASEAN Secretariat. 2008.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karov, Zohid and Hristos Doucouliagos. 2015. "Development Aid and Growth in Transition Countries." *World Development* 66, 383-399.
- Balasubramanyam, V. N., M. Salisu and David Sapsford. 1996.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in EP and is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106(434), 92-105.
- Bird, Kelly and Hal Hill. 2010. "Tiny, Poor, Land-locked, Indebted, but Growing: Lessons for Late Reforming Transition Economies from Laos." *Oxford*

- Development Studies* 38(2), 117-143.
- Boone, Peter. 1994.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Savings and Growth." *Working Paper 1265*.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 Bräutigam, Deborah A. and Stephen Knack. 2004. "Foreign Aid, Institutions and Governance in Sub-Saharan Afric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2(2), 255-286.
- Bruno, Randolph L. and Nauro F. Campos. 2013. "Reexamining the Conditional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ZA Discussion Paper* No. 7458.
- Carney, Michae and Eric Gedajlovic. 2001.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Capabilities: A Comparison of Managerial, Alliance and Personal Capitalisms."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18, 335-354.
- Feyzioglu, Tarhan, Vinaya Swaroop and Min Zhu. 1998.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Fungibility of Foreign Aid."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 29-58.
- Ghani, Ejaz and Stephen. D. O'Connell. 2014. "Can Service Be a Growth Escalator in Low Income Countries?" *World Bank Group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971.
- Gnangnon, Sèna Kimm. 2017. "Structural Economic Vulnerability, Openness and Bilateral Development Aid Flow."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53, 77-95.
-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Peter and Kathleen Thelen. 2009. "Institutional Change in Varieties of Capitalism." *Socio-Economic Review* 7(1), 7-34.
- Hansen, Henrik. and Finn Tarp. 2009. "Policy Arena: Aid Effectiveness Disputed."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2(3), 375-398.
- Hapsari, Indira M. and Carlos Mangunsong. 2006. "Determinants of AFTA Member's Trade Flows and Potential for Trade Diversion." *Working Paper 21*, Asia-Pacific Research and Training Network on Trade.
- Haraguchi, Nobuya, Charles Fang Chin Cheng and Eveline Smeets. 2017.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 Economic Development: Has This Changed?" *World Development* 93, 293-315.
- Iqbal, Nadeem, Naveed Ahmad, Zeeshan Haider and Sonia Anwar. 2013.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n GDP: A Case Study from Pakistan." *International Letters of Social and Humanistic Sciences* 16, 73-80.
- Kien, Nguyen Trung. 2009. "Gravity Model by Panel Data Approach: An Empirical Application with Implications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ASEAN*

- Economic Bulletin* 26(3), 266-277.
- Knack, Stephen. 2001. "Does Foreign Aid Promote Democra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8(1), 251-266.
- Kyophilavong, Phouphet, Xaignasack Lassachack and Thanouxay Volavong. 2016. "Do Cash Transfers Help the Poor during Trade Liberalization? Evidence from Lao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9(4), 355-371.
- Menon, Jayant and Peter Warr. 2013. "The Lao Economy: Capitalizing on Natural Resource Export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8(1), 70-89.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 *8<sup>th</sup>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2016-202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_\_\_\_\_. 2017. *Foreign Aid Implementation Report (FAIR) Fiscal Year 2015/16*.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Morrissey, Oliver. 2001. "Does aid increase growth?"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1(1), 37-50.
- Oh, Jeong-Soo and Phouphet Kyophilavong. 2014. "Does ASEAN-Korean FTA Reduce Poverty in Laos? The Roles of FDI and Trade Facilitation." *Journal of Social and Development Sciences* 5(2), 50-57.
- Plummer, Michael G, David Cheong and Shintaro Hamanaka. 2010. *Methodology for Impact Assessment of Free Trade Agreement*. Mandaluyong City, Metro Malina: Asian Development Bank.
- Sayavong, Vanxay. 2015. "Export Growth, Export Potential and Export Resistance: A Case Study of Laos." *Journal of Southeast Asian Economies* 32(3), 340-357.
- Schmidt, Vivien A. 2003. "French Capitalism Transformed, yet Still a Third Variety of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32(4), 526-554.
- Suvannaphakdy, Sithanonxay, Hsiao Chink Tand and Alisa DiCaprio. 2016. "Assessing the Trade Impacts of the ASEAN+6 FTA for Lao PDR."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30(2), 72-89.
- Vadlamannati, Krishna Chaitanya and Artur Tamazian. 2009. "Growth Effects of FDI in 80 Developing Economies: the Role of Policy Reform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Journal of Economic Policy Reform* 12(4), 299-322.
- Vongpraseuth, Thanousorn, Chang Gyu Choi. 2015. "Glob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and Conflicts in Vientiane, Laos." *Land Use Policy* 42, 790-799.

#### 인터넷 및 기타 자료

ADB. 2010.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https://www.adb.org/>

- sites/default/files/publication/27726/lao.pdf (2018/07/18 검색).
-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847-868. <http://ftp.iza.org/dp7458.pdf> (2018/07/24 검색).
- IMF. n.d.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s=1390030341854> (2019/01/22 검색).
- \_\_\_\_\_. 201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1/weodata/index.aspx> (2019/05/11 검색).
- KPMG. 2018. "ASEAN Business Guide: Laos."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mm/pdf/2018/06/asean-guide-laos.pdf> (2019/01/20 검색).
- Lindelow, Magnus, Nina Fenton, and Piriya Pholphirul. 2009. "Country Report of the ASEAN Assessment on the Social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ao PDR." <http://www.ilo.org/dyn/travail/docs/1483/ASEAN%20Assessment%20on%20Social%20Impact%20of%20the%20GFC%20-%20Lao%20PDR.pdf> (2018/07/20 검색).
- OECD.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Development: Maximizing Benefits, Minimizing Costs." <https://www.oecd.org/investment/investmentfordevelopment/1959815.pdf> (2018/07/20 검색).
- \_\_\_\_\_. n.d.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data/oecd-international-development-statistics\\_dev-data-en](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data/oecd-international-development-statistics_dev-data-en) (2019/05/11 검색).
- Okonjo-Iweala, Ngozi, Victoria Kwakwa, Andrea Beckwith and Zafar Ahmed. 1999. "Impact of Asia's Financial Crisis on Cambodia and the Lao PDR." *Finance & Development* 36(3).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1999/09/okonjo.htm> (2018/07/24 검색).
- U.S. Department of State. 2018.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for 2018." <http://www.state.gov/e/eb/rls/othr/ics/investmentclimatestatements/index.htm?year=2018&dliid=281510> (2019/01/20 검색).
- UNDP. 2018. "Lao PDR's eligibility for graduation from LDC status confirmed." [http://www.la.undp.org/content/lao\\_pdr/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8/3/19/lao-pdr\\_s-eligibility-for-graduation-from-least-developed-countr.html](http://www.la.undp.org/content/lao_pdr/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8/3/19/lao-pdr_s-eligibility-for-graduation-from-least-developed-countr.html) (2019/05/11 검색).
- United Nations. n.d.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2019/05/11 검색).
- World Bank. n.d.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view=chart> (2019/05/11 검색).



- \_\_\_\_\_. 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themes/economy.html> (2019/05/10 검색).
- World Bank Group. 2019. "Doing Business: Lao PDR."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l/lao-pdr/LAO.pdf> (2019/05/11 검색).

Abstract

**Determinants of Laos Economic Growth:  
Assessing the Level of Contribution  
by Eleme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Seol, Gyoosang ■ Hanshin University

Lao PDR, the Least Developed Country (LDC) in Southeast Asia,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since its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in the late 1980s. Especially since the 2000s, it has shown records that surpassed the average growth rate of the top five economies in the region. Reflecting this, Laos is expected to graduate from its LDC status in the coming year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factors that enabled such achievement. To this end, the study extracted seven explanatory variables and conducted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period of 30 years from 1988 to 2017. The analysis found that the factors having affected Laos economic growth the most were capital related variables. Among them,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the greatest impact on GDP, followed by foreign aid. In addition, the effect of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found to be low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ly, the research suggests creating 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with high growth-inducing effects as a condition for continuous growth of the future Laos economy, enhancing the institutional soundness for tolerance and resilience from market pressures which are concerned with it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and diversifying the industrial production sectors. At the same time, the study points out that foreign actors also need to make sure that future capital inputs to Laos are made in more systematic manners so that they can benefit more substantially from the Laos economic growth.

Key Words: Laos, Least Developed Country, economic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eign aid

□ 논문접수일: 2019년 7월 19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1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0일